

# 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## 1 출장 개요

출장목적

2026 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의장경제 역할 수행 지원

과제명

2026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

출장기간

2026.1.31.(토) ~ 2026.2.4.(수)

출장국가(도시)

중국(광저우)

출장자

노은샘 연구원

일정요약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1.31.	중국(광저우)	-	-	출국
2.1.	중국(광저우)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	APEC 보건실무그룹 관계자,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지원 (1일차)
2.2.	중국(광저우)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	APEC 보건실무그룹 관계자,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지원 (2일차)
2.3.	중국(광저우)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	APEC 보건실무그룹 관계자,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지원 (3일차)
2.4.	한국(인천)	-	-	귀국

## 2 출장 주요내용

①	출국 및 현지 도착
일 시	1.31.(토) 18:00 ~ 2.1.(일) 2:00
장 소	한국(인천) 출발, 중국(광저우) 도착
참석자	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국 및 현지 도착</li> </ul>	
②	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지원 (1일차)
일 시	2.1.(일) 9:00 ~ 2.1.(일) 18:00
장 소	중국 광저우 Baiyu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
참석자	APEC 보건실무그룹 관계자,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,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세션 1·2·3) 개최, 2025년 보건실무그룹 활동 검토, 2026년 업무계획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비전) 혁신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모두를 위한 아시아·태평양 보건 공동체 구축</li> <li>2026년 HWG 핵심 우선과제 ① 디지털·AI 활용 1차 보건의료 강화, ② 전 생애주기 관점의 스마트 고령화 대응, ③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보건안보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</li> <li>2026년에는 2월 SOM1 및 8월 SOM3에서 본회의 개최</li> </ul> </li> <li>(세션 4) 환자 중심·통합적 보건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·제도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보건 시스템 강조. 디지털·AI 기술 활용을 통해 접근성 및 환자중심성 개선 가능</li> <li>APEC 회원경제는 일차의료 강화와 사람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강조. 자국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,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 형성</li> </ul> </li> <li>(세션 5) 건강한 노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치매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예방·조기개입·전 생애주기 관리 중심의 건강한 노화 전략 강조. 일차의료를 허브로 한 통합적 관리체계 강화 필요</li> <li>장기요양보험, 지역사회 통합돌봄, Aging in Place, 가족 돌봄 지원 등 사람 중심·지역 기반 돌봄체계로의 전환과 디지털·AI 활용 등 논의</li> <li>보건재정·돌봄인력·기술을 인구구조에 맞게 재설계하여야 함. APEC 차원의 공동 프레임워크와 협력·데이터 공유·민관 파트너십 강화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	

- (세션 6)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보장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재정
  -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재정 압박 심화. 병원·치료 중심 구조에서 예방·일차의료·조기검진·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재정 우선순위 전환 필요
  - 향후 과제로 건강세 등 재원 다변화, DRG·캡테이션 등 지불제도 개혁과 가치 기반 지출 관리, 디지털 기반 지출 모니터링 및 공공-민간 혼합모델을 통한 효율성·형평성·재정 안정성 제고와 역내 협력 강화 논의
- (세션 7)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전통의학
  - 전통·보완·통합의학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공식 구성요소로 제도화하고, 법·거버넌스·전문인력 양성·임상지침 마련 등을 통해 현대의학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함
  - 안전성·품질·면허 규제 강화와 근거 기반 마련 강조. 생물다양성 보전, 공동 연구 및 APEC 차원의 정책대화·모범사례 공유 등 역내 협력 확대 필요성 제기
- (세션 8) 1일차 폐회
  - 1일차 논의 요약 및 폐회

<b>③</b>	<b>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지원 (2일차)</b>
<b>일 시</b>	2.2.(월) 9:00 ~ 2.2.(월) 18:00
<b>장 소</b>	중국 광저우 Baiyu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
<b>참석자</b>	APEC 보건실무그룹 관계자,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, 질병관리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세션 1·2) 개회, HWG 하위 실무그룹(Sub-Working Group) 및 부속 센터 워크플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디지털 헬스, 백신, 정신건강 하위 실무그룹은 각각 AI 거버넌스, 생애주기 예방접종 확대,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전환을 핵심 의제로 설정. 정책대화·연구·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의 계획 공유</li> <li>- 디지털 헬스 그룹은 AI 거버넌스 환경 분석과 정책 권고안 도출을, 백신 그룹은 성인 예방접종의 건강·경제적 가치 확산과 대시보드 구축을, 정신건강 그룹은 재난 대응 및 지역사회 모델 공유를 중점 추진할 예정</li> <li>- APEC Health Sciences Academy는 고령화·환경과 건강 등 연구와 정책대화를 통해 ‘건강한 노화 거버넌스 및 행동계획’을 마련하고,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임</li> </ul> </li> <li>• (세션 3) HWG 프로젝트 및 포럼간 협력 현황 보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BAC은 2026년 개방·연결·시너지를 주제로 근로자 건강, AI 기반 혁신, 규제 조화, 비감염성질환 대응 비즈니스 모델 등을 논의하고, 11월 APEC 장관회의에 Health Statement를 제출할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	

- 다수 HWG 프로젝트는 AI·디지털 헬스, 보건데이터 공유, 디지털 건강한 노화, 고령자·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기술 기반 회복력 있는 보건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화·체크리스트·행동프레임워크 마련을 추진 중
- 폐암·인플루엔자·심혈관질환·비만 등 주요 비감염성질환 대응, 여성건강 재정 프레임워크, 돌봄 노동자 지원 등 예방·형평성·지속 가능한 재정·공공-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 수립 등 계획 공유
- (세션 4) 혁신과 협력을 통한 공중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
  - 각국은 의료기관·실험실·환경·동물·디지털 데이터 등을 통합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, AI·빅데이터·하수 감시 등을 활용해 조기 경고 및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원헬스 기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
  - 비상운영센터 운영, 표준화된 디지털 보고 시스템, 현장 역학조사관 양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 강화.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필요성 제기
  - 예방접종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면역 전략과 디지털 기반 접종관리, 공공재정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, 성과·형평성 연계 인센티브 설계가 강조됨. 이를 통해 회복력 있고 통합된 공중보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
- (세션 5)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신건강 및 심리적 웰빙
  - 중국과 러시아는 정신건강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해 법·정책 기반을 강화하고, 일차의료 중심 통합·조기개입·디지털(원격진료·핫라인) 활용을 통해 예방-치료-재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발표
  - 학교 기반 조기개입, 자살예방 전략, AI·원격관리 확대 등 전 생애주기 접근과 형평성·지역사회 중심 통합이 주요 과제
- (세션 6) 보건의료 산업 회복력 증진
  - 혁신 신약 개발, 약가 제도 개선, 디지털·원격의료 확산, 통합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과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
  - 민관협력·투자 확대를 통한 회복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
- (세션 7) 폐회
  - 제1차 보건실무그룹 논의 요약. 디지털 전환, 고령화 대응, 정신건강, 지속 가능한 재정, 역내 보건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공동 과제로 재확인

<b>④</b>	<b>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지원 (3일차)</b>
<b>일 시</b>	2.3.(화) 9:00 ~ 2.3.(화) 18:00
<b>장 소</b>	중국 광저우 Baiyu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
<b>참석자</b>	APEC 보건실무그룹 관계자,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

- 3일차에는 ‘아시아-태평양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한 노화 촉진: 뇌 건강을 위한 통합적 예방 및 치료 전략’ 을 주제로 한 정책대화와 현장 방문이 진행됨
- (세션 1) 개회
  - APEC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, 고령화 대응과 만성질환·뇌 건강(Brain Health)이 지속 가능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
  - 정신건강 논의를 ‘뇌 건강’ 으로 확장, 정책 핵심 의제로 격상 제안. 진단·치료의 분절화와 자원 부족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반 통합·학제적 케어 경로 구축 필요성 강조
- (세션 2) 기초연설
  - 뇌 건강은 인지·정서·행동·운동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. 치매·뇌졸중 등 주요 질환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위험요인 감소, 조기진단·통합치료, 돌봄 지원을 포함한 전 사회적·전 생애주기 접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
  - 디지털·AI 기반 선별, 감시, 조기진단 및 추적관리 등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필요
  -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, 다학제 협력, 표준화된 지침과 데이터 기반 관리,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요양 접근성 확대 등 지속가능한 뇌 건강 정책 추진 필요
- (세션 3)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뇌건강 통합 관리: 중국 광둥성 및 하이난성 사례
  - 디지털·AI 기반 인지 선별, 전주기 통합체계 구축, 디지털 치료기기와 원격 모니터링 활용 등 중국 광둥성 및 하이난성의 노화 대응 및 뇌 건강 정책 발표
- (세션 4) 패널 토론
  -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·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하고, 디지털 기반 조기 선별과 재발 예측, 자가평가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됨
  - AI 인지선별, 음성·행동 데이터 분석, 비침습적 BCI 등 디지털 기술을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통합하되, 낙인 완화·윤리·표준화·인력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
  - 표준진료 경로 도입, 전문 인력 양성, 혁신 치료 개발, 공공-민간 장기 파트너십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뇌 건강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함
- (세션 5) 폐회
  - 아시아·태평양 뇌 건강 공동 이니셔티브 소개. HWG 연간 업무 계획 반영, 회원국 의견 수렴 후 7~8월 최종안 확정 및 공식 채택 추진 예정
  - 8월 SOM3 계기 회의에서 관련 의제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
- (세션 6) 현장 방문
  - (중산대학 제1부속병원) AI 기반 의료 전략과 BCI, 원격 로봇수술, 광역 응급의료 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를 통해 접근성·효율성·형평성을 높이는 통합 의료 혁신 사례 시찰
  - (BCI 기반 혁신 기업) BCI 전주기 기술과 BCI 기반 제품 시찰. BCI 기술의 재활·정신건강·보조기기 분야 상용화 가능성 확인

⑤	귀국
일 시	2.4.(수) 9:00 ~ 2.4.(수) 16:00
장 소	중국(광저우) 출발, 한국(인천) 도착
참석자	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귀국</li> </ul>	

①

회의 현장 사진



②

회의 현장 사진

